



한인가정상담소가 마련한 종교지도자와 가정사역 세미나에서 신혜원 변호사가 가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개최 ‘...가정사역 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피터 장)가 주최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종교지도자와 가정사역 세미나’가 16일 레디슨 월셔 플라자 호텔에서 70여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장장 5시간여에 걸쳐 열린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한인들의 생활에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목사나 전도사 등 사역자들이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에

서는 교인들이 여러가지 가정문제를 의논해 왔을 때 사역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장수경 심리학 박사의 ‘우울증과 자살 예방’, 피터 장 소장의 ‘가정폭력과 가정관계’, 신혜원 가정법 변호사의 ‘가정법’ 등 3부에 걸쳐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노트에 꼼꼼히 메모해 가며 강사들의 말에 귀기울였고 질문도 끊이지 않았다.

가정상담소의 피터 장 소장은 “목회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혜연기자

A18 스포츠서울USA

로컬뉴스

제1728호 | 2005년 6월17일(금요일)